

소비홍보를 펴가면서 서서히 문제해결에 접근하자



현안문제는 항상 회원들과 협의를 거쳐 처리를 한다.

**본회 경북지부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대구, 김천, 경주, 영주의
4 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대구권을 중심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이다.**

본회 경북지구(지부장 : 조동필)는 73년 본회에 지부로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건실한 운영을 해오고 있다. 매년 회원수가 60명선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전임 박규병지부장(봉촌부회장, 현 봉촌농장)시절 그러니까 창립 초기에는 회원이 100여명이 되기도 하였는데 차츰 경주권, 김천권, 영주권, 대구권 등으로 지역별 중심의 계우회 조직이 강화되면서 약간 회원이 감소되었다.

의협심이 강한 지부장을 중심으로 최선 다해

지부조직은 부화, 채란, 육계를 망라하여 양계업자들의 권익단체로 발전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개했던 분회조직과는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지부는 현재 85년 말부터 조동필(한농농장대표:채란) 지부장이 맡아 회원 총59명을 관리해 오고 있는데 회원들로부터 의협심이 강하여 존경을 받아오고 있는 소문(?)난 사람이다.

“어려움이야 어디 저하나 뿐이겠습니까? 저도 산란계를 5만수 정도 하지만 계속되는 불황에 시달리다 보니 제대로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송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를 중심으로한 회원들이 협조를 (기차게)잘해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4개 지역권 형성이 운영상에 어려움으로

이곳 경북지부의 특징이라면 우선 지역별로 양계업자들이 4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부산과 가까운 경주는 거의 사료나 병아리를 부산쪽의 물량을 쓰고 있으며 산물을 부산과 대구로 가격에 따라 처분하고 있어 지부와 협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김천지역권은 대전과 서울로 활동무대를 두드러지게 잡고 있으며, 영주도 서울로, 대구권은 지부를 중심으로 뭉쳐있다 보니 단합에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적 특수성

“한꺼번에 갑작스런 변화를 주기보다는 소비 홍보사업에 치중하면서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조 동 필
지부장

이 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초창기에는 비교적 육계업자나 지역적 구분이 없이 협조가 잘 되었는데 차츰 육계업자들이 독립단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오랜기간 동안 반쪽 지부운영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육계업은 도계장을 중심으로 둘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상호간에 자극을 받아 육계산업이 발전이 된 면도 없지는 않지만 발전보다는 협력이 안되어 퇴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경북지역 지부관내에 한성인 마을이 24군데나 된다. 그곳중 양계사육을 전업으로 하는 곳이 16군데나 되는데 이곳의 물량이 산란계 사육 총 수수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사육규모는 1만수 이상은 없고 5천수 이하가 태반이어서 개개인들이 지부에 가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채란분야는 계우회로 육계는 분회조직으로 운영

그렇지만 특이하게 채란업자들 하

고는 계우회 조직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데 계우회 조직은 8군데나 된다. 각 계우회 회원들과의 연락은 직접 개별적으로는 하지 않고 계우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육계분야는 최근부터 협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6개 분회로 편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계우회나 분회에 가입된 회원들이 전부 지부에 가입된 것은 아니고 단체명으로 가입이 되어 회원한사람분으로 처리된다.

정보제공을 주력사업으로

경북지부가 시행하는 사업중의 하나는 채란계 회원들을 위하여 「양계 산물시세속보」와 육계 회원들을 위한 「주간육계정보」를 각각 매주 1회 업서로 발행하여 보내는 정보 전달 작업을 하고 있다.

이곳도 역시 계란의 경우 과잉물량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저는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직을 만들어 가격조절에 온갖 힘을 다한다 해도 생산과잉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총무로 재직 지부살림을
도맡아하는 정익수씨

결국 가격이 보장되고 안정이 된다면 생산자들 스스로가 더욱 생산증가에 몰두하여 경쟁을 하게 되니까 늘 마찬가지로 일 겁니다.

속히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내려온 전례가 있어서 선뜻 나서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어야

실제 경북지부는 타 지역과는 다르게 계열화나 협동조합설립이다 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의 협동조합운영 결과에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저도 지부회원들을 위시해서 양계산업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산감소 문제만 하더라도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1만수 했으면 금년에는 부득이 그 이상을 해야(증가) 먹고 살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계란값이 그에 따라 오른다면 몰라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쿼터제는 경제 여건상 어려운 제도이고 계열화나 협동조합설립 중 어느 하나를 택해서 아니면 병립식으로 해서 든 생산자들이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갈려고 할때 모든 여건들은 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축가에게 맞는 업무가 활성화 되었으면

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할때 지금과 같이 사료업계의 보이지 않는 반발 때문에 자가배합사료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바로 이와 같은 행정 제도가 문제입니다. 조합도 조합원을 위한 운영이 되도록 관계부처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자세가 되어야만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양계산물의 군납권을 축협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에 일임을 안해주는 것도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쨌든 경북지부에서 보는 문제점이 전 양계인들이 바라는 개선점이기도 한 것이다.

소비홍보 사업을 선행하고 서서히 제도개선을

끝으로 조동필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지부장으로서 업계가 해야할 현안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제는 산물이 소비량보다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게끔 소비홍보사업을 적극 벌여야 합니다. 어쨌든 아직은 외국의 전례를 봐도 소비량이대폭 증가할 여력은 충

분히 있으니까 소비가 증가하도록 노력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우리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여기에 한가지를 더 추가해서 소개할 이야기는 서울물량이 지방으로 역류되지 않게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전국적으로 빛어지는 가격하락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까지가 서울물량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지만 지부에서 바라는 것은 무분별한 덤핑행위를 생산자들끼리 서로 「봉사가 제답 잡아먹기식」의 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가 한다.

이제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산다는 명제하에 경주권도, 김천권도 영주권도 다 같이 경북지부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열어 갔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회원 명단

직 책	성 명	농 장 명
지 부 장	조동필	한성농장
채란분과위원장	박배현	
육계분과위원장	김광운	
감 사	임용봉	
회 원	정재덕	신일부화장
〃	서정환	친호부화장
〃	정이규	삼일부화장
〃	이상운	신기부화장
〃	김영일	제일부화장
〃	라재면	신성부화장
〃	서보근	동원부화장
〃	류종래	유성부화장
〃	정문용	자인부화장
〃	이해용	하양부화장
〃	이삼열	안심부화장
〃	정상태	홍성부화장
〃	노광영	학성협업
〃	정영석	예미부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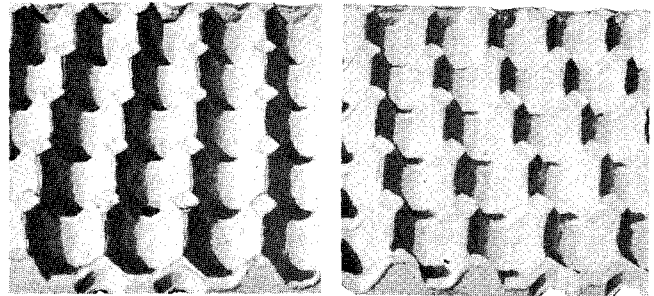
〃	김진영	봉산부화장	〃	이세환		〃	김부곤	낙산농장
〃	정원준	신라부화장	〃	오석원		〃	심상옥	
〃	박규병	봉촌농장	〃	박삼현	팔공계우회	〃	석전수	
〃	이재근	장군농장	〃	임용봉	하빈계우회	〃	백종갑	
〃	오정길		〃	박수곤	경산계우회	〃	성필방	
〃	배천규		〃	이판희	자인계우회	〃	정용길	
〃	이동술		〃	김두윤	가야농장	〃	김영환	안강계우회
〃	권진택		〃	강상길	홍진부화장	〃	이상철	경주계우회
〃	김천우		〃	김철수		〃	배남식	선남계우회
〃	박덕환		〃	박순도		〃	강운식	천평계우회
〃	이영태		〃	박해탁		〃	이장형	영천분회
〃	이현		〃	석영수		〃	이병호	경산분회
〃	이영환		〃	손양걸	옥도농장	〃	전만식	하양분회
〃	최중호		〃	최대석		〃	이영하	칠곡분회
〃	최정호		〃	이인호	칠곡농장	〃	유철석	달성분회
〃	이재복	하산농장	〃	권평조		〃	곽성화	대구분회
〃	박노설	대성농장	〃	윤성일				
〃	백종수		〃	최병준				
〃	이정대		〃	조형래				

* 총무 : 정익수
 경리 : 최경희

종이난좌 를 사용하시면 달걀의 위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규격 종이난좌의 특징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예방
4. 파란방지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제일성형공업사

연락처 : (0351) 63 - 7363 · 7097
 (02) 549 - 5287